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1~8/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절수행입문(불교수행입문2)	교육원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2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3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8	사람이 부처님이다(법화경이야기) *법공양7	무비	불광출판부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9	불멸(1) 영원한 지금의 메시지 *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5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 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0	법구경 이야기(1) 법구경주석서	무념, 응진 역	옛길

책세상

범패 원음, '붓다의 음성'…범패 시작, '붓다의 말씀'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음악인류학
윤소희 지음
민족사 / 3만8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나름 대접받는 엘리트였던 범마유가 석가모니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복하여 그 음성을 일러 '범음성'이라 하였다. 붓다의 음성은 말씀의 씨앗이 인체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파동이므로 그 말씀의 궁극은 태초로 거슬러 간다."

신간 〈음악인류학〉은 음악과 사람, 종교와 문화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음악문화는 고대사에서 근현대사까지 아우르고 통섭하며 불교음악으로 귀결된다. 이 책은 저자인 윤소희 교수의 연재 칼럼 '불교와 세계 종교'를 묶은 것으로, 저자가 세계를 여행하며, 다른 문화권의 종교음악과 비견되는 한국의 음악을 폭넓게 탐색한다. 여러 나라의 종교와 음악을 경험하며 이해를 돕는 이미지와 직접 촬영한 사진도 볼거리이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구어체의 문장에서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저자의 학문적 음악탐구는 '붓다의 소리(梵音聲)'에 방점이 있다. 제1장에서는 인도·중국·한국을 통섭하며, 각국의 문화와 종교, 음악을 이야기한다. 인도의 음성행법과 붓다의 범음성을 이야기하고, 유교와 도교의 제사와 음악, 중국 음악과 서역의 음악, 조선의 악정(樂政), 한국인의 기질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기독교·불교 등 다양한 종교를 아우르고 분석하며 붓다의 소리를 찾아 나선다. 아라비아와 인도의 만남에서 비롯된 수피 춤, 기독교와 불교음악, 한국과 일본의 풍속과 음악, 사찰 주악도와 주악도 속의 악기들, 한국 범패의 미래 등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붓다야말로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한 음유시인이며, 가장 매력적인 가수이자, 초대 어장(魚丈)"이라며 "범패의 원음이 붓다의 음성이며, 범패를 잘하는 비결로는 미성이나 기교, 잇속을 위해 노래하면 세속이 가수이지 출세간의 어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붓다의 말씀 중 그 율조가 가장 유려한 것은 '가타(gatā, 詩)'이다. 가타는 '노래하다'는 산스끄리뜨 어근 '가우(√gau)'의 명사형으로 법언 자체가 아름다운 음악이었던 데서 비롯된다. 가타를 모아 놓은 〈법구경〉은 붓다의 노래 모음집이라 할 만큼 운율이 아름답다. 그러므로 붓다의 말씀을 소리로 기록한 빠알리 경전을 외는 남방스님들의 수행처에서는 수시로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이러한 점에서 석가모니는 출세간의 음유시인이자 인류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싱어(singer)이며, 범음성의 초대 어장(魚丈)이었다."



통도사의 당비.

세계 돌며 한국 음악 폭넓게 탐색
'붓다의 소리'서 학문적 탐구 시작
"붓다의 소리, 단순한 음악 아닌
인연법에 따른 진리를 설한 것"
"한국인 DNA에 불교음악 내재"

따라서 범패의 원음은 '붓다의 음성'이고, 범패의 시작은 '붓다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책에 따르면 범패의 원음이 붓다의 음성이듯이 범패를 잘하는 비결 또한 붓다와 같이 내면의 청정함과 수행의 내공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패 가사를 노래하더라도 법언보다 창자의 미성이나 기교 혹은 특정한 잇속을 위해 노래한다면, 그 사람은 세속의 가수이지 출세간의 어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저자는 붓다의 소리를 단순한 음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연법에 따른 자연과 인간의 진리를 설한 소리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진여를 밝히기 위하여 세계의 종교음악과 불교를 화두로 인류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음악을 좋아한다. 흥이 넘치고 떼창을 즐기며 열광하기를 좋아한다. 세계 음악계를 압도하는 한국인의 음악적 재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저자는 한국인의 유전적 DNA에 2천 년 동안 우리 문화의 뿌리였던 불교음악이 있다고 소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는 칼럼 지면의 한계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들과 사진 자료를 대폭 보완하여 다른 문화권의 종교음악과 비견되는 우리 음악을 폭넓게 탐색하고 있다. 세계 음악계를 압도하는 한국인의 음악적 재능에는 200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하며 한민족 문화의 뿌리가 된 불교음악이 있다. AI 시대 한국의 범음성으로 치유와 명상, 기쁨과 환희, 분노와 슬픔을 풀어내고, 멋지고 품위 있게 잘 놀기 위하여 이 책을 세상에 내어본다"고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저자인 윤소희 교수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음악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우교수로 있으며 현재는 한국불교음악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계를 다니며 현지 조사를 통한 연구로 학문적 성과를 일궈가며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국악 창작곡 분석〉·〈국악 창작의 흐름과 분석〉·〈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 등이 있다.

군더더기 없는 직역으로 〈화엄경〉을 쉽게…



〈화엄경소론찬요〉 17~21권
혜거 편저 / 불광출판사 / 3만원

혜거스님 〈화엄경소론찬요〉 17~21 출간
80권본 39품 중 27품부터 38품까지
2025년 완간 예정, 2024년 앞당길 수도

혜거 스님 〈화엄경〉 역경의 또 다른 대작 불사 〈화엄경소론찬요〉 17권부터 21권이 출간됐다. 2016년부터 출간을 시작한 혜거 스님의 〈화엄경소론찬요〉 역경 불사는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화엄경〉의 개요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한 〈화엄경〉 강설이라고 할 수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약칭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최상의 경전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천상과 지상을 오가며 일곱 곳에서 아홉 번 설하신 〈화엄경〉은 워낙 깊고 오묘한 데다 그 분량 또한 방대하여 불교에 해박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이다.

〈화엄경소론찬요〉는 명말청초 때의 도패(1615~1702) 대사가 약술 편저한 책으로, 청량 국사의 〈화엄경소초〉와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론〉의 정요만을 뽑아 편집한 것이다. 이 방대한 해석을 보다 쉽고 간명하게 축약하여 동시에 풀어주고 있어 〈화엄경〉의 묘체를 밝혀주는 최고의 〈화엄경〉 주석서이다.

혜거 스님은 이 〈화엄경소론찬요〉를 대본으로 하고, 다시 탄허 스님의 번역을 참고하면서 현대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서로 편저했다. 혜거 스님의 번역은 군더더기 없는 직역을 특징으로 한다. 번역 당시의 유행하는 문체로 번역을 하면, 이삼십 년만 지나도 그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화엄경〉 역경 대작불사의 첫 결실을 맺은 〈화엄경소론찬요〉 1·2권은 〈화엄경〉 80권본 39품 중 '세주묘엄품'에 해당하며, 원본 〈화엄경소론찬요〉 120권 중 제1권부터 제11권까지의 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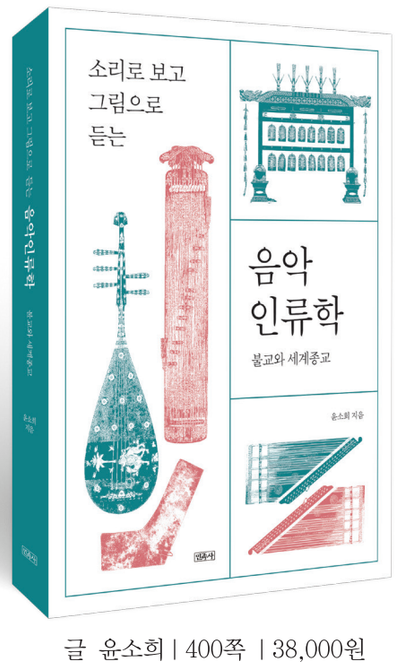
이번에 간행된 17~21권은 〈화엄경〉 80권본 39품 중 27품(십정품)부터 38품(이세간품)에 해당하며, 원본 〈화엄경소론찬요〉 120권 중 제74권부터 제97권까지의 내용이다.

혜거 스님의 이번 역경불사는 〈화엄경소론찬요〉 120권을 현토하여 2025년 2월에 총 26권으로 완역될 예정이다. 하지만 혜거 스님에 따르면 이번 불사가 예정보다 좀 더 빨리 회향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세납 80세인 혜거 스님은 "날이 갈수록 알게 모르게 기력이 쇠하니, 나이가 더 들면 완역을 마무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그래서 더욱 번역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다행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10년 예상했던 완역 출간 계획을 조금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2024년 2월에 마지막 26권을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방대한 분량과 난해한 내용으로 인해 〈화엄경〉에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 혜거 스님의 〈화엄경소론찬요〉를 권한다.

박재완 기자

K-팝에는 불교음악이 있다?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음악 인류학



코리안 떼창의 진원지는 사찰 악가무일까?
한국의 예수재와 이집트의 사후 심판은 어떤 관계?
염주로 꿰어보는 수능 금지곡과 수피 춤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종교음악,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들려주는 불교음악을 통해
불교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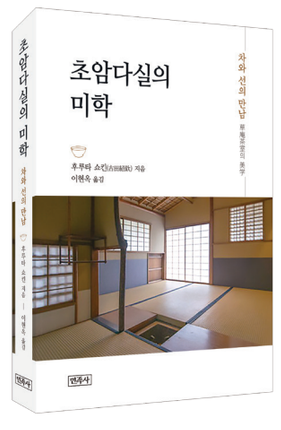


글 윤소희 | 400쪽 | 38,000원

윤소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음악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우교수로 있으며 현재는 한국불교음악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는 《국악 창작곡 분석》《문명과 음악》《세계 불교음악 순례》《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한·중 불교의례와 범패》 등이 있다. 연구논문 《팔리어 송경율조에 관한 연구》《범어범패의 율적 특징과 의례 기능》《불교 의례활동과 사원경제》《삼국유사의 음악과 악기》《티벳 참 의례와 몸짓 만다라》《보로부두르 주악도와 한국의 불교 악가무》《천수다라니 범문원리와 한·중·일 율조 비교》 외 다수가 있다.

차(茶)와 선(禪)은 하나다!
고졸한 다실에서 깨달음을 얻다

세상에 차를 마시는 사람은 많지만
도(道)를 모르는 사람은 차에 먹힌다.
초암다실의 미학적 구조를 통해
선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저자 후루타 쇼킨, 역자 이현옥 | 256쪽 | 22,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